

「포성없는 전쟁」으로 표현되는 첨단 산업 기술개발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 있는 명문대학 부근에 연구소와 하이테크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여 과학기술도시(테크노폴리스: Technopolis)를 건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테크노폴리스란 고도기술집적도시

기술,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곳은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MIT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듀크대학과의 산학협동 체계를 바탕으로 발전한 모범적인 연구도시이다.

일본의 경우 쓰쿠바 과학도시는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신도시로 연구학원 지구와 주변개발 지구로 나뉘어져

학술 및 과학기술개발의 중심지로 떠오른 곳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7년 과학기술처가 발족되고 과학기술 발전 20년 계획의 일환으로 첨단과학 연구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전시 근교에 대덕연구학원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덕에는 78년 한국표준연구소가 처음 입주한 이래로 17개 정부출연기관과 18개 민간연구기관, 4개의 국가기관, 6개의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중심연구학원인 3개의 고등교육기관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 입주한 연구기관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산업, 생명과학과 유전공학센터, 정밀화학, 원자력연구소, 항공우주과학 등 명실공히 한국과 학기술개발의 산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의 격동기에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10여년 앞을 내다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정비사업을 맡고 나간다는 것이 모험으로 받아들여기도 한다.

결국 테크노폴리스 구상은 우수한 지역개발이라는 점에서 성공이 기대되고 있으나 전지역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각 지역사회의 실질적 발전을 찾기 위해서는 고용문제도 적절히 해결하는 특징있는 테크노폴리스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의 산업, 학문, 주거기능에 레저활동을 첨가한 리조트 타입의 테크노폴리스도 공장, 레저시설, 종업원 주택 등을 한 세트로 하여 건설하는 복합도시와 같은 형태로 전환해 나갈 전망이다. **57**

테크노폴리스

인구 4~5만의 고도기술 집적도시 美실리콘밸리, 日쓰쿠바, 한국대덕 등

를 나타내는 말로, 일본 통산성에 의해 제안된 구상이다. 인구 약 20만명 내지 30만명 규모의 기존도시 근교에 반도체산업이나 컴퓨터, 복합로봇산업으로 대표되는 첨단기술산업지역과 대학, 연구기관, 국제회의장을 갖춘 학술지역을 유치하며 아울러 풍요한 문화시설과 의료정보시스템 등을 갖춘 학술지역을 동시에 보유하는 인구 약 4만명에서 5만명의 종합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 팔로알토로부터 산호세 사이에 폭 16km, 길이 48km에 걸쳐 골짜기처럼 보이는 언덕과도 같은 도시의 집합이다. 실리콘밸리의 산업은 컴퓨터반도체, 항공우주산업분야 등의 전자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포켓컴퓨터, 무선전화, 레이저



◇공중에서 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 전경

약 2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연구학원 지구에는 47개의 국립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있고 8개 민간기업연구소가 입지해 있다. 이곳은 1985년 국제과학기술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본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소개되어 국제적인